

##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 ㉔ 문화가 있는 공공의 정원

집은 내키는 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정원은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른 분위기로 즐길 수 있다. 꽃을 기다리는 설렘을 주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행복한 정원. 가든 디자이너 강혜주 씨가 제안하는 정원 디자인 속에서 나만의 꿈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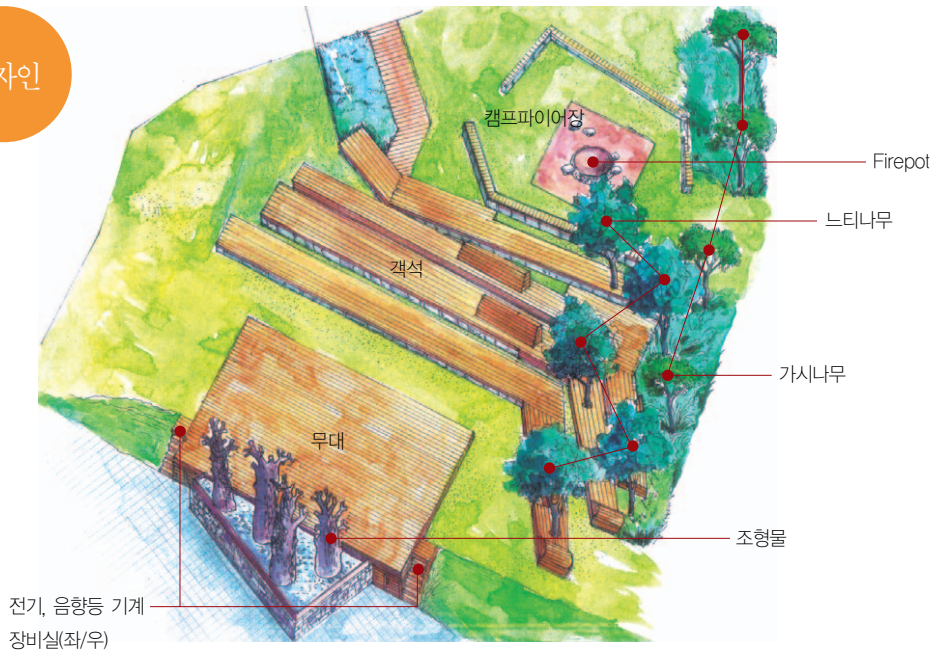


요즘은 개인 주택의 정원에서도 지인들을 초대해 가족 음악회를 펼치는 작은 무대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의 옛 시대부 정원은 아름다운 경치 속에 누마루가 있는 정자를 세워 시와 글을 주고 받으며 술과 음악, 춤을 즐기는 풍류가 있었다.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정신적 가치를 담아내는 수준 높은 정원 문화인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컨템포러리 가든(Contemporary Garden)은 정원에 거실을 끌어내, 침 공간과 바비큐 파티 등을 할 수 있는 주방 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현대식 정원이다.

이 둘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조화시켜 본 것이 사천의 한 연수원 정원이다. 이 곳을 디자인할 당시에는 이미 2013년 재즈페스티벌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바다를 배경으로 선 아름다운 무대에서 친구의 전통 무용을 보고 싶은 바람으로 설레는 작업이기도 했다. 300~400명 정도의 객석과 대규모 댄스도 가능한 무대 크기, 조명과 음향, 컨트롤 박스와 함께 각종 기기들을 보관할 창고 같은 공간이 요구됐다. 또한 관람석에서 무대까지 효율적으로 시야를 트기 위해 기존에 있던 수목과 새로운 수목을 조합해 배치했다. 가장 많은 느티나무는 그늘목으로 쓰기로 하고, 남부수종인 가시나무는 가로수 개념으로 식재했다.

또한, 군데군데 여러 종류의 그라스들을 무리지어 심어, 시간이 갈수록 멋스러운 정원을 꿈꿨다.

디자인



바다와 파도를 콘셉트로 디자인한 무대와 객석. 앉거나 눕거나 기대거나 다리를 뻗기도 하는 평상 같은 이미지로 만들었다. 무대 방향을 전체적으로 틀고, 기존에 돌로 쌓은 계단식 잔디 공간을 약간 변형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했다. 사각의 무대 아래로 튀어나온 삼각형이 원래 있던 무대 모양이다. 기존 무대 모서리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활용, 공연이 없을 때 이름다운 쉼터에 장식적 효과를 더하기로 했다. 무대 아래에는 전기 관련 기계와 음향기기를 보관하는 두 개의 실이 있고, 관람석 위로는 캠프파이어 공간을 넣어 화합 장소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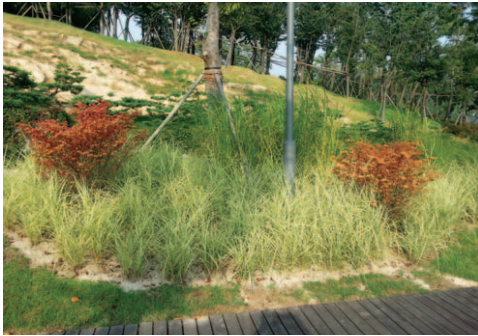




이길레 작가의 노송 시리즈 작품이 무대 바깥에 설치되어 있다. 청동으로 만든 조형물 사이로 바다가 투영되고, 그라스들은 한껏 자라 또 하나의 물결을 이루는 모습이다. 잔디 광장과 데크길, 털수염풀, 멀리는 대나무숲과 벗나무, 관람석 사이 느티나무가 있다.



옆에서 본 모습으로 상단에 컨트롤무대가 있고, 계단식으로 이어진 데크 아래로 전기, 조명, 음향에 관련된 선들이 연결되어 있다. 조명 기구와 시설물 등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 계산을 철저히 하고 데크목으로 하드우드를 택했다.



관람석 한쪽에는 가시나무 아래 단풍이 예쁜 화살나무를 심었다. 여기에 중투, 흰줄무늬억새, 키와 무늬가 다양한 그라스류로 멋을 냈다.



그라스 정원은 여름 장마에 강건하고 가을, 겨울에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 실제 공연이 이루어진 무대 정원 모습



지난해 재즈페스티벌 공연 당시 모습이다.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세로 한여름 밤의 음악 공연을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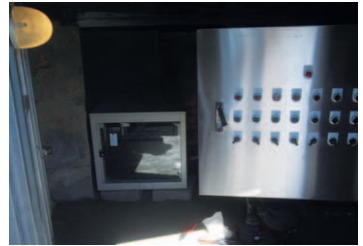
기능적  
공간



전기선을 보관하는 둥근 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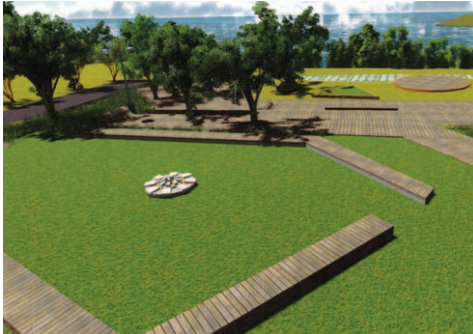


무대의 좌우에 있는 기계 장비실



방수와 배수를 철저히 한 장비실

캠프  
파이어장



캠프파이어를 위한 화구는 철과 솔의 무게를 고려해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1m 깊이로 파 석분을 쌓고 그 위에 지지대를 두고 화구를 올렸다. 청소와 배수를 고려해 배관도 잊지 않고 설치했다.



객석 위쪽에 자리한 캠프파이어장. 화구 (Firepot) 안에 눈꽃 모양의 장치는 나무가 잘 타게 하는 용도이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장식적 특징을 갖는다. 화구 주변 철판에는 자연석을 고정시켜 돌과 철이 어우러지도록 했다. 주변 벤치에는 아래로 비치는 조명으로 라인을 강조했다. ▲

시공 (주)플로시스 가든팁스 02-445-8890 www.flosys.co.kr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투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일산세계꽃박람회 초청작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ww.와일드가든.com wildgarden3@naver.com